

관광객 입맛 사로잡을 무안 낙지요리 개발한다

요리개발 TF팀 구성...월 2회 주기적 만나 메뉴 발굴 낙지 단품요리·금어기 대체요리 등 음식 관광 활성화

무안군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낙지를 활용한 요리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맛도남도 명품음식거리 내 낙지요리 음식점 22곳 중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주방요리사 7명을 뽑아 요리개발 TF팀을 구성했다.

요리개발 TF팀은 지난 10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월 2회 주기적으로 만나 영업주가 주도적으로 메뉴를 논의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저렴하고 맛있는 낙지 단품요리와

무안 특산물을 이용한 금어기·비수어기 대체 요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무안을 찾는 관광객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기존의 낙지 요리를 변화시켜 모든 세대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도 개발한다.

요리개발이 완료되면 낙지요리 음식점과 레스토랑을 공유하고 개발된 요리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과 연계한 요리체험 콘텐츠, 단품요리 시식 등을 통해 무안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한번 맛보면 다시 생각나는 메뉴를 발굴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



고 낙지요리 음식점들과 연계해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맛도남도 명품음식거리에 오셔서 다리가 길고 가늘어 육질이 부드럽고

졸깃한 무안 낙지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생활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

4월 1~30일 목포시민 누구나 참여

목포시가 생활쓰레기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각종 생활쓰레기 줄이기 방안 ▲재활용쓰레기 줄이기 방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32, 트윈스타 4층)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제안 등급을 심사해 오는 6월 중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금상(1명)은 3백만원, 은상(1명)은 2백만원, 동상(2명)은 1백만원, 장려상(3명)은 50만원, 노력상(5명)은 10만원이 각각 부상으로 수여된다.

공모의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공모문을 확인하거나 전화(270-832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여성의 가치역량 up, 사회 참여 up
제6기 영광여성자치대학 개강

영광군은 지난 23일, 영광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영광여성자치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여성자치대학은 여성의 자치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16년에 개설하여 지금까지 34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다. 올해 6기는 수강생 25명을 모집하여 3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인문학, 리더십,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으로 10차시 과정을 운영한다.

강의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운영하며, 개강식 후에는 희망평생교육원 원장인 김용범 강사의 "행운여행"이라는 주제로 1차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일상이 여성자치대학을 통해 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힐링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배움을 향한 수강생 여러분들의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주)와이제이씨, 15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학교농공단지 내 6,348㎡ 공장증설

함평군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와이제이씨와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28일 "세라믹 연구·제조기업인 (주)와이제이씨(대표이사 배지수)와 이날 오전 1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주)와이제이씨는 학교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부지 인근에 150억 원을 투자해 6,348㎡ 규모의 공장을 증설한다. 이번 신규 공장 증설로 기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2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지수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기업 역량을 집중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7년에 설립된 (주)와이제이씨는 국내 유일의 전자부품소성용 내화물 전문업체로 세라믹 브러쉬, 현무암 섬유 등 특수 복합재료를 개발해 국내 150여 개소, 해외 18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영암군, 우기 대비 하천 퇴적도 준설

관내 11개 읍면 소하천 퇴적도 준설사업 추진

영암군은 우기 하천 단면 부족으로 인한 범람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퇴적도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을 4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산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토사 퇴적 등 홍수 단면이 부족하여 재해위험이 큰 하천을 중심으로 관내 하천 13여km 구간에 사업비 7억7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기 이전 하천 내 퇴적도 및 잡목 제거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급작스러운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퇴적도 준설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재해예방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연중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로 재해예방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평화의 섬' 하의도 해안산책로 '경관조명' 점등

아름다운 밤바다 야경, 인동초 벽화등 특화 경관 조성

신안군은 낙후된 농어촌 중심지역의 기반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의도 옹곡 해안산책로 점등식'을 지난 3월 24일 개최하였다.

하의도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인故김대중 선생의 생가와 농민운동기념관, 삼대교, 큰바위얼굴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전복, 낙지 등 제철수산물에 사계절 생산되어 관광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한개의 본섬과 8개의 낙도로 이루어진 하의도의 특성상 중심거점인 옹곡리의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88억원이 선정되었다.

먼저, 어업활동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옹곡항의 소형선박 계류장 설치와 노후가모등 교체,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인동초 벽화, 중심 지역 건축물 색채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최근, 국내·외 유명인들의 방문으로 높은 인지도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섬의 관문인 옹곡 해안산책로 700m 구간의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밤바다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경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연출하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하의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경관 조성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공동체 거점 마련과 주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이택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